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22회기,

2부 열왕기하 9-10장, 2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제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전개 방식이나 이야기되는 내용, 그렇지 않은 내용 등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하지 않았어.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지리를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계곡 가장자리에 있는 여름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남서쪽으로 약 20~25마일 떨어진 산간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씁니다. 네 주인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고,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읍과 무기가 네게 있느니라.

이제 이 편지가 네게 이르거든 너는 네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합당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힌 다음 네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워라. 왜 그가 그냥 가서 사마리아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왜 이 장치를 사용했을까요? 좋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영리한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는 꽤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비록 그가 전체 군대를 데려온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는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왕을 죽였습니다.

그는 여왕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는 유다 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그는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마도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절해야 합니까? 그에게 맞서서 그가 도시를 포위하도록 합시다. 글썄요, 포위 공격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군대는 이에 지쳐서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매우 영리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그들은 왜 그토록 두려워하였습니까? 두 왕은 그를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응.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았어, 알았어.

왕으로서 그들은 전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명의 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결단력이 있고 매우 영리합니다. 빠른 행동. 다시 말하지만, 그는 실제로 전혀 강력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그는 그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겁을 먹도록 허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무 멀리 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강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약한 위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잖아? 글썄요, 당신은 이것을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과 이것을 위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올바른 위치, 강한 위치에서 그를 섬기자. 승자의 위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글썄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왕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너희가 내 편에 서서 내 말을 따르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이세벨에 있는 나에게로 오라.

ifs도 없고 ands도 없고 여기에만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습니다. 자, 제가 배경에서 말했듯이, 실제로 70명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는 아합과 요람이 상당히 활동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 곱하기 10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백들을 잡아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잠시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9절과 10절에서 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죄합니다.

내 주인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인 것은 바로 나였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죽였는가? 그런즉 너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죽였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라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후의 집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음모일까요? 이것은 단지 쿠데타인가? 이것이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결정입니까? 그의 질문은 흥미롭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이 일이 나와 내 소수의 병력보다 더 널리 퍼졌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전국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 편에 서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Fran이 말했듯이 여기 있습니다. 예후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깁니다. 그는 단순히 왕이 되려고 왕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후는 아합의 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지도자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 죽을 것인가? 아합의 가족. 그는 자신의 우두머리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 모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알의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점을 명심하세요.

이제 예후는 출발하여 사마리아를 향해 갔습니다. 좋아,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서 해결하자.

목자들의 벵에게드에서 유다 왕 아하스의 친족 몇 사람을 만나 너희가 누구냐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아하시야의 친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왕과 태후의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살려두라고 그는 명령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산 채로 끌어다가 벵에겟 우물 곁에서 42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1절에서 우리가 한 것과 같은 말이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피에 굶주린 정화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과 그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두 없애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시야의 친척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하시야의 친척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하시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펴십시오.

호세아는 다니엘 직후인 약 100년 후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 그가 드발라 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삼았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학살한 예후의 집을 속히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할 것임이니라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시점에서 예후의 4대째가 왕위에 올랐고, 그가 예후 왕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의 아들 스가라는 2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왕들의 관점에서 호세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이 결정적인 사람이 방금 쫓겨 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피의 갈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글썄, 내가 그것들을 모두 없애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다섯 번째 열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은 열왕기하 15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흥미로운 작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난 후에 그를 맞으러 가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문안하여 이르되 내가 너와 뜻이 같으니 너도 나와 뜻이 같느냐 그래요.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예후가 가로되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였고, 예후는 그를 도와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런 다음 그는 그를 자기 수레에 태워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는 깨어진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그들의 아버지 레갑으로부터 결코 도시에 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았습니다.

그 도시가 포위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시에 있고, 피난처를 찾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술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글썄,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며 예레미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에 대해 조상과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개네 안 할꺼야. 그들은 아버지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종으로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여호나답이 '여기 예후라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마침내 우리를 바알 숭배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야 합니다.